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유산을 찬연히 빛내여주신 불멸의 업적

은 종 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옳바로 평가하고 해명하시여 정의로운 민족사를 더욱 빛내여주시였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민족의 역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은 유구한 민족사와 함께 창조되고 전하여지는 창조물이며 여기에서 문학예술유산은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수놓아오면서 자기의 고유한 생활과 지향을 반영한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으며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유산으로 남겨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유산을 대하는데서 복고주의와 허무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옹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문학예술유산에 관한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문학예술유산을 정확히 평가처리하며 유구한 민족문학예술사를 옳바로 정립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귀중한 문학유산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찬연히 빛을 뿌리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유산을 찬연히 빛내여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평가하도록 이끌어주시심으로써 유구한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력사가 옹게 정립되고 지난날의 작가와 작품의 가치가 정확히 평가되도록 하신것이다.

문학예술유산계승발전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내세우시고 견지해오신 일관한 로선이고 립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사상을 구현하시여 주체적립장에서 문학예술유산을 분석평가하고 정립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지난날 문학예술분야에 나타났던 유럽중심주의적관점과 경향을 철저히 없애고 문학예술작품과 작가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옹게 평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유럽중심주의는 한때 세상에 널리 류포되어 매개 나라의 민족문화발전에 막대한 후과를 미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날 우리 나라에도 그 여과가 밀려들어 유구한 민족문화유산을 보잘것 없는것으로 여기는 《서방문화이식설》과 같은 민족허무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 해독을 끼친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그 후과를 철저히 극복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유럽중심주의적관점은 유럽의것을 환상적으로 대하고 우리의것을 보잘것 없는것으로

여기는 사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관점이며 유럽문학예술을 자막대기로 하여 자기의 것을 기계적으로 대비평가하는 비과학적인 태도이다.

지난날 유럽중심주의적관점에 사로잡힌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고전소설이나 고전시들은 전통적가치가 없는 고루한것으로서 근대에 와서 사라지고 근대문학에서 새로 나타난 신소설이나 자유시, 희곡들은 유럽문학의것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립장에서 문학예술유산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중세문학예술과 근대문학예술과의 계승관계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고 유구한 우리 문학예술의 줄기찬 발전력사가 옳바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학예술유산이 응당한 위치에서 빛을 뿌리게 되고 지난날 문학예술분야에 남아있던 우리 문학예술의 《전통단절론》, 《기계적이식론》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반일의식을 구현한 작품은 진보적인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시고 민족수난기의 작품과 작가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평가하도록 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문학예술분야에서는 해방전문학예술을 평가하고 문학예술의 발전력사를 정립하는데서 무산대중의 계급의식을 구현한 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을 일면적으로 내세우고 그밖의것은 응당하게 취급하지 않는 편향이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당시 우리 혁명과 인민앞에 나선 구체적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방전문학예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고 그것이 누가 쓴 작품이든 반일의식, 민족자주의식을 구현한 작품은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작품으로 볼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민족수난기 문학예술유산이 전면적으로 재평가되고 지난날 문학예술사에서 도외시되였던 수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이 우리 문학예술의 력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면모가 옳게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날 문학사에서 이름이 없었던 불교활동가이며 작가인 한통운과 그의 작품이 해방전 반일애국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였고 소설가 현진건이 재능있는 단편소설가로뿐만아니라 반일애국적지향이 뚜렷한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을 써낸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순수문학》으로 외면당했던 정지용과 그의 시에서 민족적정서가 평가되고 그 작품들이 수난기 시문학의 가치있는 유산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리효석의 후기문학에 새롭게 관심이 돌려져 친일을 예리하고 특색있게 비판한 작품들이 발굴되고 부각됨으로써 반일애국적인 그의 작가적면모가 응당한 평가를 받게 된것들은 그 단적인 실례들이다.

강경애의 창작에 대하여서도 지난 시기에는 계급의식이 뚜렷한 장편소설 《인간문제》를 기본으로 내세우고 중편소설 《소금》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살길을 찾아 간도에 간 사람들의 수난과 계급적각성을 그린 작품으로만 취급되였다. 그것이 항일유격대에 대한 일제의 비방증상을 뒤집어엎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장을 들고 싸우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애국애족적인 참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준 귀중한 소설문학유산으로 그 사상예술적특징과 가치, 창작의 진의도가 옳게 밝혀지게 되었으며 계급의식만 일면적으로 강조되던 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반일애국적인 성격이 새롭게 해명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유산을 찬연히 빛내여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지난날 이러저러한 리유로 력사밖으로 밀려났던 수많은 작품들이 새롭게 평가되어 문학예술사에서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작가의 사회정치적생활경위에는 관계없이 문학예술발전에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라면 그 작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응당하게 내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한때는 문학예술발전과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에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작품을 썼던 창작가라고 하여도 사회정치생활에서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근대에 들어와 근 반세기동안이나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고 해방후에도 나라의 절반땅이 미제의 강점밑에 있게 된 조건에서 작가들속에서도 복잡한 운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작품은 비록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일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의의있는 작품으로 창작되어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민의 소유물로, 귀중한 재부로 된다는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작가의 생활에서 후에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창작된 작품의 사상예술적가치는 력사에 남는것만큼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응당하게 내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1910년대에 의의있는 작품을 써낸 후 친일의 길을 걸어 사람들의 규탄을 받은 리광수와 최남선의 초기작품들이 문학사에 오르고 작품집도 나오게 되었으며 부르조아반동작가로 규탄받은 적지 않은 작가들의 일부 작품들도 그 긍정적요소가 새롭게 평가되어 민족문학의 재부의 하나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에서 지난날 문학작품들의 가치와 의의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수난기에 창작보급되였던 계몽기가요들의 사상예술적특성과 가치를 깊이있게 분석평가해주시고 비록 시대적제한성은 있지만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야 할 오늘에도 의의를 가지는 노래라고 내세워주시였다.

지난날 일부 사람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나온 대중가요들을 퇴폐적인 《류행가》라고 하면서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견해를 유산평가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떠난 그릇된 편향으로 비판하시고 계몽기가요에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슬픔, 울분의 감정이 담겨져있다고, 력사적안목이 없이 계몽기가요를 류행가라고 하면서 부르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다면 우리 문학예술사에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그것을 문학예술의 귀중한 유산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유산을 찬연히 빛내여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오랜 력사적과정에 인멸되었거나 발굴되지 못했던 문학작품들을 새롭게 발굴정리하고 오늘 우리 인민들이 널리 볼수 있도록 하신것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오면서 적지 않은 문학예술유산들이 없어지거나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산들도 있다. 이로부터 우리 문학예술사에는 빈약한 부분들이 적지 않게 생기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의 이

름있는 작가들과 그들의 우수한 작품들 그리고 작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찾아내어 여러가지 방법과 형식으로 널리 소개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중에서도 19세기와 1910년대, 1920년대에 창작되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비롯하여 발굴에서 선차적인 힘을 넣을 대상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시대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부족점이 있는 작품들은 사람들이 보고 정확한 리해를 가질수 있도록 해설을 달아서 내보내고 고전작품들중 한문으로 된것은 우리 말로 번역하여 오늘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잘 볼수 있도록 하며 발굴된 작품들을 정리하고 출판소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발굴한 작품들과 이미 알려진 시대적의의가 있는 작품들을 종합체계화하여 출판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널리 읽을수 있도록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조선고전문학선집》과 《현대조선문학선집》을 각각 100권씩 묶어내도록 하시였으며 그 발행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편집발행정형을 여러차례 료해하시고 시대적의의가 있는 작가와 작품이 빠짐없이 실리도록 평가선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그리하여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는 시기를 포괄하여 새로 발굴정리되고 새롭게 분석평가된 작품들이 수많이 포함된 150여권에 달하는 조선문학선집이 발행되였다.

20세기 전반기 민족수난기의 문학유산을 집대성한 《현대조선문학선집》에만도 수백여명의 문필가들이 쓴 수천여편에 달하는 소설과 시, 희곡과 평론, 아동문학작품들이 실림으로써 민족수난기 우리 문학사는 보다 풍부해지고 민족의 넋이 깃든 수많은 귀중한 문학유산들이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리 인민과 문학가들의 창조적지혜와 애국적열정이 깃든 풍부한 문학예술유산들은 사람들에게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아주고있으며 문화정서생활에도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수천년 우리 민족의 력사와 재능이 깃든 유구한 문학예술유산은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력사의 망각속에 잠겨있던 수많은 문학예술유산들이 새롭게 알려지고 민족의 넋이 깃든 작품들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이르는 곳마다 민족의 정서, 민족의 향기가 넘쳐나고있다.

우리는 문학사연구를 심화시켜 민족의 넋과 향취가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학예술유산을 더 많이 찾아내어 정리함으로써 우수한 민족성을 꽃피워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